



보도시점

2026. 5. 11.(월) 11:00
5. 12.(화) 조간

배포

2026. 5. 11.(월) 09:00

농촌창업 네트워크 권역별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

- 농촌 창업가 주도의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공식 출범한 「농촌 창업 네트워크」의 권역별 네트워킹 활동이 준비 과정을 거쳐, 5월 13일 영남 권역 대표단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농촌창업 네트워크」는 농촌 활력 증진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 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지난 3월 18일에 공식 출범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촌창업 네트워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를 매칭*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각 지원센터에서는 권역별 간담회 및 워크숍 등 개최, 협력 프로젝트 발굴과 컨설팅, 신규 창업가 발굴 등 운영 지원을 통해 농촌 창업가들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역별 네트워킹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강원·충북 권역(강원 지원센터), 경기·충남 권역(충남 지원센터), 호남·제주 권역(전남 지원센터), 영남 권역(경남 지원센터)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은 5월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강원·충북 권역은 5월 20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6월 워크숍을 통해 협력 아이디어를 도출한 뒤 7월부터 11월까지 협력 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경기·충남 권역은 5월 21~22일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력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호남·제주 권역은 전남(5.14)·제주(5.19)·전북(5.21) 지역별 간담회와 소그룹 논의(5~7월)를 거쳐 8월 전체 워크숍을 통해 협력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영남 권역은 5월 대표단 간담회(5.13)와 전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6월 워크숍을 통해 협력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7월에는 전체 권역 대표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12월까지 본격 추진되는 권역별 활동 내용들을 연말 성과보고회를 통해 공유하고 우수사례 등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네트워킹 정례화 운영 지원을 통해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단순한 교류 플랫폼이 아닌 농촌 창업가 주도의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로 구축·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 운영은 지역 간 자원과 아이디어를 연결하여 농촌창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참여 창업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협업 기회 등을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농촌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책임자	과 장	정문기 (044-201-1581)
		담당자	사무관	정세환 (044-201-1584)

참고

농촌창업 관련 참고 사진



농촌창업 네트워크 출범(3.18)



농촌창업 현장1(므므흐스 버거)



농촌창업 현장2(그래도팜)



농촌창업 현장3(업타운 촌캉스)